

낙타와 인어

누군가 물었다. 왜 낙타와 인어를 그리느냐고. 글썄... 어느 날 신문에 난 한 장의 낙타 사진이 나에게 뜻 깊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?

‘카라반의 일원이 된 낙타들은 병에 걸려도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편함을 내색하지 않는다고 한다...(중략) 거의 죽음에 이를 지경의 낙타라도 천천히 리듬을 타고 이동하는 카라반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춘다. 그러다가 낙타들은 쉬면서 되새김질을 할 때 갑자기 까닭 없이 죽게 된다. 낙타는 사람을 결코 배반하지 않는다고 한다.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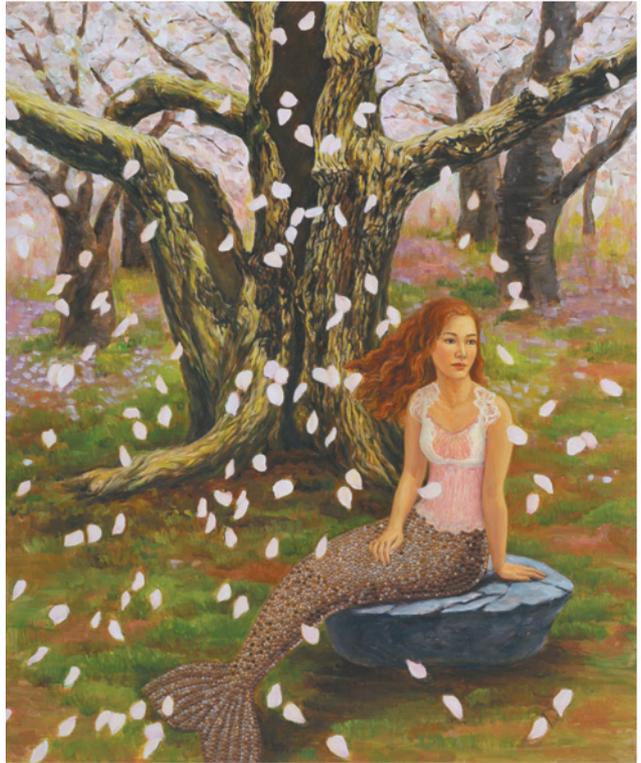
— ‘실크로드의 마지막 카라반’ 중에서 —

낙타의 등에서 열매도 맺히고, 풍선도 열리고... 어찌면 나는 낙타의 모습에서 묵묵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른다. 인어의 사연은 어떤 신부님과과의 대화 중에 나온 화두였다. “저 자신이 인어와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” 나는 짐짓 놀랐다. 아! 여자들만 그런 심정이 드는 것은 아니구나.

당시 나는 현실에 발을 못 붙이고 꿈속에서 헤메는 자신의 모습이 ‘꿈꾸는 식물’ 같다고 생각했다. 인어는 동화 속에서만 존재한다. 꿈꾸는 식물의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. 바라만 보는 사랑, 결코 가질 수 없는 대상과 욕망...

우리 인생을 둘러보면 화두가 아닌 것이 어디 있으랴. 꽃, 구름, 길, 강물, 산... 도시를 바라보는 인어의 뒷모습에서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헛된 욕망과 쓸쓸함을 보고, 길고 긴 사막을 걷는 낙타의 모습에서 외로움과 인고의 시간을, 그리고 우리 인생을 보고, 떨어지는 꽃잎에서 인생무상을 보고...

이제 몇 년 후엔 내 나이도 지천명에 이를 텐데 제 아무리 인간 수명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미 청춘은 아닌 것을. 그래도 누가 물어보면 “저요? 서른 아홉인데요”라며 버터 볼까나? 



낙화 / 100×80.3cm / oil on canvas / 2011



바라봄-인어 / 100×80.3cm / oil on canvas & sparkle



민세원

198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
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과 졸업

개인전 3회

동경 긴자 세오갤러리
 인사갤러리
 갤러리 2000

단체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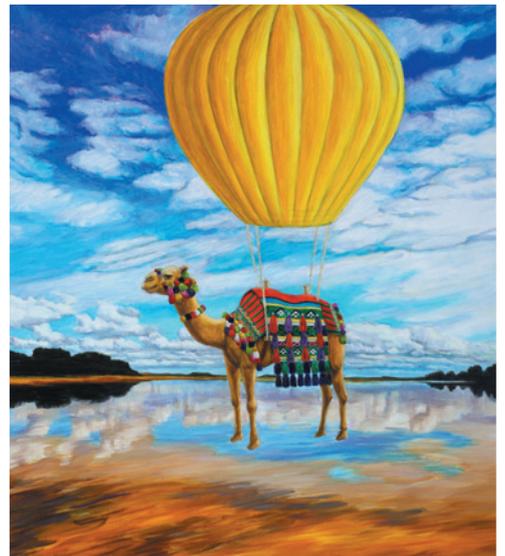
긴자에서 은하수를 만나다(동경 긴자 세오갤러리)
 사랑의 5% 뱅크 나눔展(갤러리 각)
 ananke(가나아트 스페이스)
 한-필리핀 현대미술초대전(필리핀 국립미술관)
 동아미술제(국립현대미술관)
 중앙미술대전(호암아트홀)
 2000-조망(서울방법)작가회의(대전시립미술관)
 드로잉-길(서경갤러리)
 한국-유고슬라비아 미술교류전(류블리아나시 미술관, 유고슬라비아)
 서울 현대미술제 외 다수

현재

전북대학교 미술대학 출강
 문의 : 02-725-9444



The Road / 91×72.7cm / oil on canvas / 2011



The Road-ad balloon / 72.7×60.6cm / oil on canvas / 2011